

하늘사랑

2018. August

8

www.kma.go.kr Vol. 446

정책 클로즈업

기상장비 구매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합니다

포커스

기상예보의 심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가다

날씨 + 연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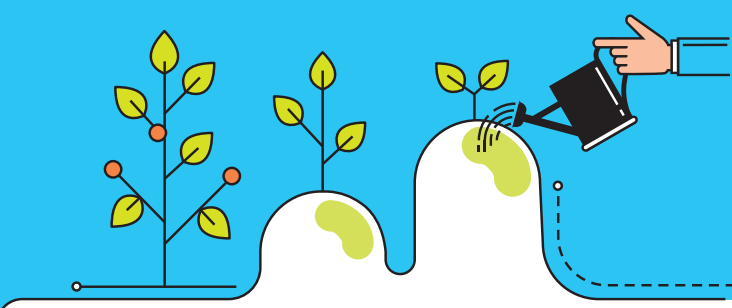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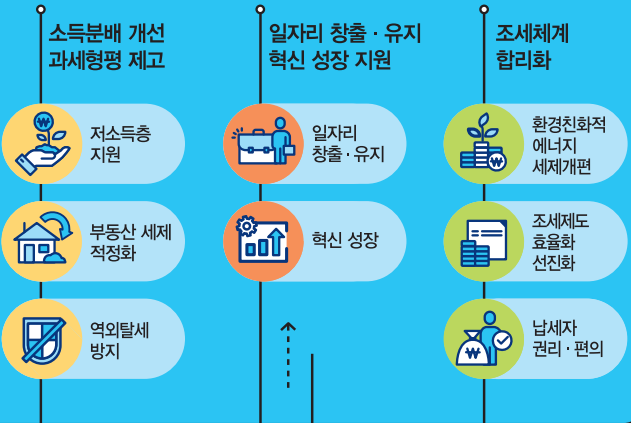
바깥, 어떤 불면의 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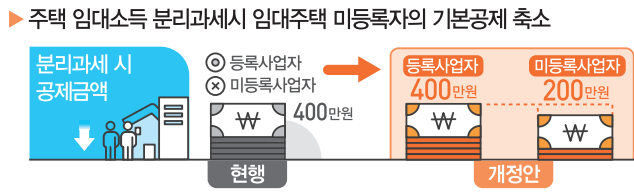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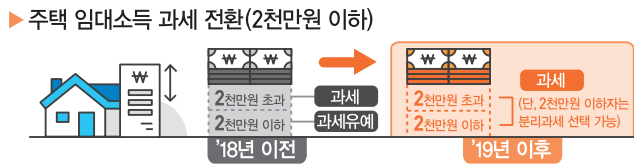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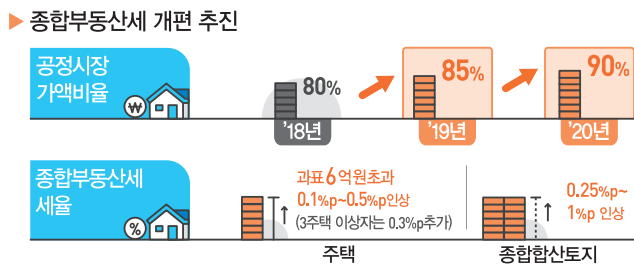
기상청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책 기본방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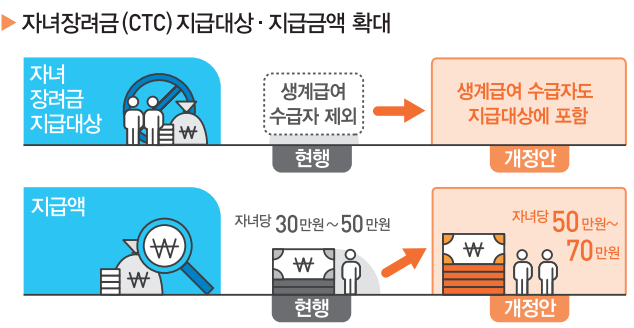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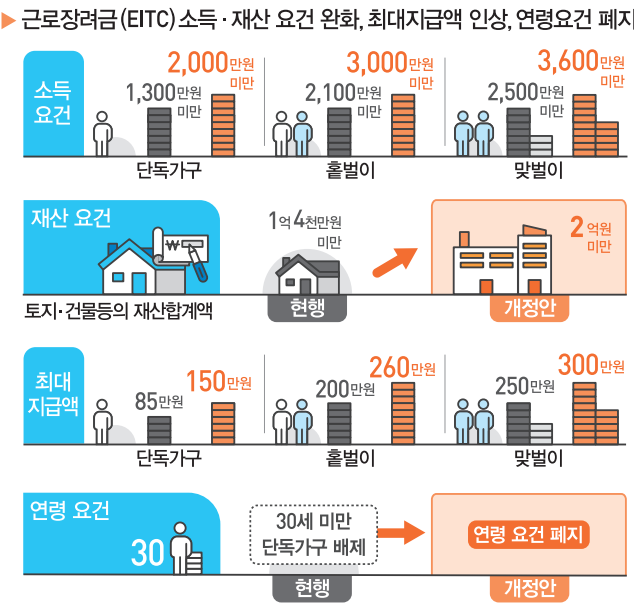
신고 대상	부동산	직접투자
취득·임대 내역 (가액기준 없음)	취득·임대·처분 내역 (취득·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임대·처분금액의 각 10% (1억원 한도)
미신고 과태료	부동산: 취득금액의 1% (5천만원 한도)	직접투자: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
개정안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부과 제척기간	무신고	과소신고
현행	7년	5년
개정안	10년	10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늘사랑

2018 August Vol. 446 2018년 8월호(통권 446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8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남재철 편집장 김현경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 정책 클로즈업
 기상장비 구매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합니다 · 02
- 포커스
 물살은 힘차게, 감동은 벅차게!
 조정선수권대회 기상지원을 말다 · 04
- 기상예보의 심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가다 · 06

KMA 날씨 +

- 날씨 + Story 더운 여름의 지표,
 삼복! 삼복이 무엇일까? · 20
- 날씨 + Book 늙은 소년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두근두근 내 인생』 · 22
- 날씨 + 연애 바깥, 어떤 불면의 시간에 · 24
- 날씨 + 역사 무적함대를 막은 프로테스탄트 바람 · 26

KMA About

- 열린마당
 안동기상대와 함께 하늘을 그리다 · 08
- 뽕뽕 차인 고백부터 눈물의 결혼식까지 · 10
- 네발로 도전한 자전거 초보의 국토종주 · 12
- 길치의 좌충우돌 당일치기 여행 · 14
- 색색의 문화가 빛은 말레이시아 · 16
- 미래를 바꾸는 두 가지 선택,
 『장미와 찔레』를 읽고... · 18

KMA Report

- 포토 브리핑 · 28
- 독자 마당 · 30
- 포토 에세이 · 32



August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장비 구매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합니다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기상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기상청과 국민의 시각 차이가 크다. 기상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 개선 전담반(TFT: Task Force Team)’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기상장비 구매를 지양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장비 도입 전(全) 과정에 실명제를 적용하여 구매행정 책임을 강화하였다.

구매제도 개선, 왜 중요한가?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검증된 기상장비를 이용한 세밀한 기상관측이 필수이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지 않는 저가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상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기상장비 도입에 있어 기상청 내부의 시각과 외부의 시각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엄정한 구매 절차와 각종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은 기상청 조직문화 혁신의 7대 과제이기도 하다.



기상장비 구매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 기상장비 구매와 관련해 언론의 이슈로 거론된 내용과 구매 추진 내역을 종합 검토·분석해보면, 거래 실례 가격에 대한 원가 산정 미반영, 납품 실적에 대한 검증 미비, 객관적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미반영, 구매사업 지연 등의 내용이 있다. 이처럼 각종 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절차적 또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구매제도 개선에 대한 규정과 지침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첫째, 기상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둘째, 기상장비 구매 규격 객관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확대와 구매규격서 표준화를 추진한다. 셋째, 기상장비 도입 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간 구매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현장 맞춤형 기상장비 구매 지원반(Help-Desk)을 상시 운영한다. 넷째, 기상장비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을 추진한다. 다섯째,



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 전담반(TFT) 1차 회의



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 전담반(TFT) 2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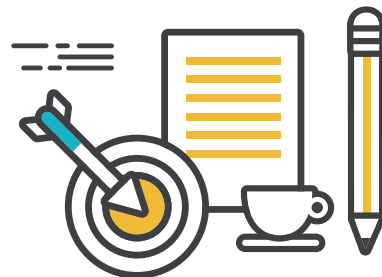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신설 추진과 형식승인기술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추진 과제 시행 계획도 마련한다.

누가 개선할 것인가?

그렇다면 구매제도 개선은 누가 할 것인가? 만약 기상청 내부에서만 다루게 된다면, 사소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자칫 큰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상청은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총 7명의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 전담반(TFT)'을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담반(TFT)을 통해 기상장비 도입 전, 도입 시, 환류 단계 등 도입 단계별 자문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올해 9월까지 기상청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매제도 개선의 정책적 효과는?

기상청은 '기상 기자재 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과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등 3건의 규정과 지침을 지난 7월에 개정하였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기상장비 구매 지원반(Help-Desk)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을 현재 652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확충하여 도입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상장비 가격 시장 조사 대상은 14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하고, 기상장비 도입 절차 종합매뉴얼을 새로 발간하여 합리적인 구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 등 타 부처와 구매분야의 정책적 소통과 기상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한 차원 높은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물살은 힘차게, 감동은 벅차게! 조정선수권대회 기상지원을 맡다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김예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던 6월 26일, 아침부터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를 보자 초조해졌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하는 '2018 아시아주니어&아시아컵 II 조정선수권대회'의 기상지원을 위해 나와 한상현 예보관님, 정병우 주무관님이 함께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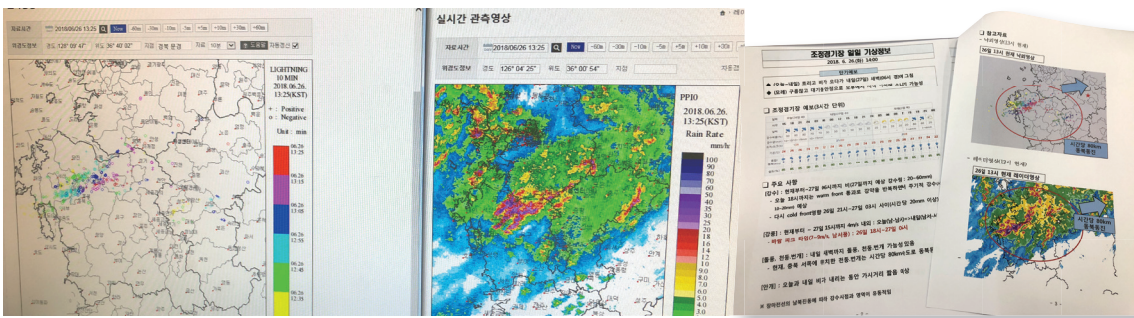


조정대회 기상지원 파견을 나간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17개국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19세 미만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주니어대회와 일반 시니어 선수, 장애인 선수가 참가하는 아시아 컵 조정대회가 동시에 치러졌다. 장마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경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비가 약하게 내려 경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 경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던 홍콩인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은 조정경기가 낙뢰와 강한 바람에 큰 영향을 받으니 이 점에 특히 신경 써 예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오전 경기 때는 비가 강하지 않아 빗속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문제는 오후 경기였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낙뢰를 동반한 강한 강수 예코대가 충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곧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기술감독과 조정대회 관계자들이 모두 우리 자리로 모여 경기 진행 가능 여부에 관해 물었다. "30분 이내에 낙뢰가 치면서 강한 강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를 권유합니다." 결국 15시 경기가 30분 연기되었다. '강수대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레이더 예코와 창밖만 계속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강하게 퍼붓던 비는 예상대로 30분 정도가 지나니 점점 약해졌고, 경기도 다시 진행되었다. 휴! 그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6월 26일 기상상황 및 기상정보



심판진 및 조직위 회의 / 기상정보 제공

조정,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조정은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스포츠로 보트 레이스(boat race)라고도 한다. 혼자 경기하는 싱글 스컬부터 8명의 선수가 협력해 노를 짓는 조정의 '꽃' 에이트까지 8가지 세부 종목이 있다(싱글스컬, 더블스컬, 무타페어, 유타페어, 무타포어, 유타포어, 쿼드러플, 에이트). 레이스를 완주하는 데 평균 6~8분이 걸리고, 240~260번의 노질을 빠른 속도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다. 한 번의 경기(2km의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선수의 체중이 약 1.5kg 정도 줄어든 정도라고 한다. 더욱이 보트의 폭이 40~70cm밖에 되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 온몸을 움직이며 노를 저으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보트의 무게는 50kg~95kg이고, 가격은 보통 차 한 대 값(1500~2000만 원)이라 관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대회 마지막 날의 감동

첫째 날 장맛비가 내린 것 외에 강수와 강풍 등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기상상황은 다행히 없었다. 조정 경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풍속에 유의하며 예보와 기상실황 감시에 집중했다. 대회는 마지막 경기까지 무사히 치러졌다. 이날 남자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은·동을 모두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기 계양대 세 곳 모두 태극기가 올라가는 벅찬 순간에는 나도 함께 애국가를 제창했다.

한편, 조정의 '꽃'인 에이트 경기에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접전을 벌인 끝에 0.01초 차로 2위를 차지하여 전을 넘치는 경기를 관객들에게 선물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의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4위를 차지하였다.

조정이 이렇게 매력적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이 무척 아쉬웠다.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치러지는 짜릿한 조정 경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 누구든 그 매력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



남자 경량급 더블스컬 시상식



남자 에이트 파이널 경기

기상예보의 심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가다

대전대신고 1학년 이석훈

기상예보관이 꿈인 나는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체험할 수 있는 캠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 신청을 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7대의 슈퍼컴퓨터 중 2대를 보유한 장소로, 기상청의 심장이자 기상예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곳이다.

첫 번째 시간, 슈퍼컴퓨터센터 소개

슈퍼컴퓨터는 '당대의 컴퓨터 중에서 가장 빠른 계산 성능을 갖는 컴퓨터'를 말한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플롭스(Flops)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이는 1초에 계산할 수 있는 횟수를 가리킨다. 그럼 슈퍼컴퓨터는 어디에 사용될까? 슈퍼컴퓨터는 첨단 제조 및 데이터 분석, 생명과학 연구, 정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이 중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는 주로 기후, 기상, 지구시스템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2000년부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후 5년마다 세대교체를 하여 현재는 2015년에 들인 4호기 슈퍼컴퓨터가 있다.

두 번째 시간, 슈퍼컴퓨터 하드웨어 분해·조립체험

먼저, 우리 조는 4호기 내부를 살펴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3호기를 활용해 하드웨어 분해·조립 체험을 했다. 슈퍼컴퓨터가 있는 전산실에 들어가기 전, 정전기를 방지하는 걸옷(스막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먼지 제거를 위해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밟은 후 들어갔다. 내부는 슈퍼컴퓨터 및 관련 장비로 가득 채워져 있어 웅장했고, 슈퍼컴퓨터에서 나는 소음으로 시끄러웠다. 또 슈퍼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많은 열을 식히기 위해 공랭식과 수랭식을 모두 사용하여 전산실 온도를 21~22도로 유지하고 있어 추웠다.

슈퍼컴퓨터의 기본구조를 블레이드(blade)라고 한다. 블레이드 16개가 모이면 하나의 샤시(chassis)가 되고, 3개의 샤시가 모이면 하나의 캐비닛(cabinet)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캐비닛 2개가 모이면 컴퓨팅 시스템이 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3호기의 캐비닛을 열고 직원의 지도에 따라 블레이드를 꺼내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 힘이 들었다.

곧이어 3호기의 블레이드를 직접 분해했다. 블레이드 하나는 CPU, NODE VRM, GEMINI,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부를 보는 순간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연산 속도와 저장용량에 영향을 주는 CPU, 메모리와 통신 속도에 영향을 주는 NODE VRM을 살펴보고 다시 조립해두었다.





세 번째 시간, 센터 기반시설 견학

슈퍼컴퓨터 기반시설도 견학했다. 전기실에 있는 수배 전반은 한전에서 수전한 22,900V 특고압 전기를 저전압 전기로 낮추어 슈퍼컴퓨터로 공급하는 설비였다. 또, 정전이 일어나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도 슈퍼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용 발전기도 갖추고 있었다. UPS 축전지는 휴대폰 배터리와 같은 역할로, 평상시엔 상용 전원을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정전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실에는 냉동기도 있었다. 냉동기는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기로 5°C 냉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이다. 그 외에도 지열시스템, 냉각탑, 냉수 펌프, 향온/향습기가 있다. 기반시설만 봤을 뿐인데 어쩌면 슈퍼컴퓨터는 이 센터의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거대한 느낌을 받았다.



네 번째 시간, 파이(π) 계산하기

네 번째는 직접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이었다. 실습을 위해 PuTTY를 키고 서버에 로그인해야 했는데 과정이 좀 복잡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병렬화 기법에 관해 설명을 듣고 파이를 계산했다. 프로세스 개수를 늘릴수록 계산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며 성능을 실험할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 시간, 수치예보의 이해 및 일기예보 해보기

마지막으로 한 실습은 내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체험이자 슈퍼컴퓨터의 주 업무였다. 수치예보모델은 영국의 수학자 리처드슨 박사가 '방정식을 풀어서 날씨를 예측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그 후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크게 전 지구 예보모델, 지역 예보모델, 국지 예보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 예보모델은 13개국밖에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치예보를 처음 시작한 미국보다 37년 늦은 1988년에 시작했지만, 빠르게 발전해 현재 세계 6위의 수치예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 지구 모델을 이용하여 태풍 '쁘리빠룬'의 예보 그림을 만들어보고, 슈퍼컴퓨터의 서버에 직접 들어가 우리 동네의 위도, 경도를 입력해 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실습을 했다. 3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온, 수증기, 바람, 강수변화를 확인하며 우리 동네의 온도는 30°C 이상으로 덥고 맑은 날씨에 비가 오지 않는 날씨라고 예보해볼 수 있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내 두 눈으로 슈퍼컴퓨터를 직접 보고, 만지고, 분해하고, 수치예보를 그려볼 수 있을까.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청소년 체험캠프는 기상예보관이 장래희망인 나에게 평생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행복한 시간이었다.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를 감지하는 수치모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기상청의 센터가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센터가 되기를 바라며, 이런 멋진 기회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꼭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안동기상대와 함께 하늘을 그리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우리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동안 미술학원을 꾸준히 다녔지만 솜씨를 펼칠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마침 안동기상대가 '제6회 하늘사랑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날씨를 그려보아요

"맑고 푸른 하늘을 그려볼까, 멋진 구름을 그려볼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을 그려볼까?" 주제 선정을 위해 아이들과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1학년인 첫째 딸은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뜬 하늘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했고, 일곱 살인 둘째 딸은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에서 농부 아저씨가 울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아이들과 함께 날씨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사생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상청이 단순히 날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상관측, 예보, 지진, 황사, 기후변화 감시 등 날씨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이 둘, 기쁨도 두 배!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완성한 것에 의미를 두고 수상에 대한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동기상대로부터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다. 기특하게도 첫째 딸인 가온이가 초등학교 저학년부 '금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리 집의 두 아이가 함께 참여한 대회에서 상까지 타다니 기쁨도 두 배였다. 비록 막내 아이는 상을 타지 못했지만 분명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기상대 담당 주무관님이 전화를 걸어와 축하 인사와 함께 시상식 참석 여부를 물어보셨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유쾌한 시상식

시상식 날짜와 아이 아빠의 휴가가 우연히 겹쳐 온 가족이 함께 안동기상대를 방문했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큰 아이의 작품이 복도에 당당히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도 그 광경이 신기했던지 연신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시상식장 좌석에 적혀 있던 아이의 이름을 발견하곤 뿌듯함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시상식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신 담당 주무관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김선영

하늘사랑 사생대회 저학년부 금상
김가온 어머니



저학년부 금상 김가은
비가 온 뒤 무지개가 떴어요



저학년부 동상 권민정
홍수가 났어요



저학년부 은상 우지윤
장마가 길어 빨래가 안 말라요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다소 경직되어 있던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멀리서 와주신 부산지방기상청 청장님의 유쾌한 농담으로 이내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소리가 났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기상대 주무관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해주셨다. 덕분에 기상청의 업무, 기상과 기후의 차이,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 현재 날씨를 관측할 수 있는 기상관측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기상대는 일반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기관이니 눈에 잘 담아두라고 조언해주었다. 둘째 아이는 모든 게 신기해 보였는지 자꾸 만져보려 해서 살짝 곤혹스러웠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과 공부가 되었을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하늘을 보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사생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훌륭한 상까지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안동기상대에서 주신 기회 덕분에 아이들과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날씨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보며 서로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하늘사랑 사생대회'를 통해 더 많은 아이가 기상청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날씨와 관련된 추억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뽕뽕 차인 고백부터 눈물의 결혼식까지

2018년 5월 26일 스물여덟 화창한 봄날, 나는 동갑내기 어여쁜 처자와 결혼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8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내 삶의 반쪽이 된 그녀는 충남 계룡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오롯이 나 하나만 믿고 올라왔다. 오늘도 강아지처럼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을 아내를 위해 정시 퇴근을 기원해본다.



주경돈
춘천기상대



축구공처럼 뽕뽕 차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평소 관심이 있던 국악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여름 합숙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다.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피부와 쾌활한 모습이 매력적인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게 되었다. 나는 합숙 기간 동안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추파를 던졌고, 그녀도 싫지 않은 눈치였다. 덕분에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보기 좋게 차였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좋았고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한 달 뒤에 다시 고백했다. 그렇게 또다시 차였다.

이제 군 입대도 얼마 남지 않았고, 두 번이나 보기 좋게 차였으니 술로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그런데 마침 동아리에서 개강 전 모임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냉큼 달려갔다. 술을 잘 못 마시는 그녀를 대신해 흑기사를 자청하기도 했다.

나는 잔뜩 취한 채 그녀와 운동장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나에게 사귀자고 말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그녀도 처음부터 나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군 입대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 부담스러워 친구로 지내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을 들은 보름 뒤, 나는 공군에 입대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2년 동안 매주 면회를 왔고 제대 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만을 바라보았다.



울지마, 바보야!

시간이 흘러, 양가에서 자연스럽게 혼사 이야기가 오갔다. 1년 동안 준비한 결혼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눈물이 많은 그녀를 위해 결혼식 당일 신랑 입장곡과 함께 신나게 막춤을 추어댔다. 이내 신부 입장이 진행됐다. 결혼식이 중반부에 들어서자 양가 아버님의 덕담이 이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녀의 눈에서가 아니라 내 눈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대학을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 갈등할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런 어색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덕담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하여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다. 신부가 우는 경우는 봤어도 신랑이 대성통곡이라니... 식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신부의 화장을 고쳐주는 이모님은 눈물로 빨개진 나의 얼굴에 열심히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셨다. 그야말로 평생 '이불 킁'할 사건이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울지마, 바보야!

올라! 마요르카!

결혼식 후, 정신을 차려보니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한 것이 신혼여행이었기에 13시간의 비행도 짧게만 느껴졌다. 바르셀로나, 마요르카, 마드리드, 세고비아, 톨레도 등 스페인의 곳곳을 10박 12일 동안 돌아보았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마요르카'였다.

마요르카는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휴양 도시로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섬이다. 쇼팽이 자주 찾았던 휴양지이자, 테니스 선수인 나달의 고향이기도 하다. 바닥까지 보이는 에메랄드빛의 지중해는 너무 맑아서 보트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음식은 조금 짝지만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하늘은 신혼여행 느낌을 내기에 충분했다. 정말로 느긋하고 완벽한 신혼여행이 아닐 수 없었다. 먼 훗날 퇴직을 하고 나면 꼭 마요르카에서 여생을 보내자고 아내와 약속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때로는 남편과 아빠로 살아갈 앞으로의 내 삶이 걱정되기도 한다. 우리 아버지처럼 잘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눈앞에 항상 꽃길만 펼쳐져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 여러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생각하며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나를 배우자로 맞아준 아내 수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고마워, 행복하게 잘살자! 🍀



네발로 도전한 자전거 초보의 국토종주



“세상에! 스무 살이 넘도록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있니?” 그게 바로 나였다. 엄마는 왜 내게 자전거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친구들과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빌릴라치면 나는 항상 2인용 자전거의 뒷좌석이어야 했다. 뒤에서 아무리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앞에서는 그 공을 알아주지 않아 늘 억울했다. 나는 언제쯤 자전거 위에 홀로 설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사실 늘 그때뿐이었다. 그렇게 2인용 자전거와 함께 이십 대의 반을 넘게 보냈다.

자전거 초보의 도전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고 생각한 건, 2년 전 대전으로 발령받아 왔을 때였다. 고향인 부산과 달리 평지가 많은 대전은 어디든 자전거길이 잘 갖춰져 있었다. 마침 관사와 청사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어, 올해는 꼭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되어보기로 결심했다.

이후 대전의 공공 자전거인 '타슈'를 통해 자전거 타기를 시도했다. 페달 위에 발을 올려봤지만, 페달보다 땅에서 발이 동동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 두발자전거에 내 두 발을 더해서 네발이 된 셈이었다. 페달에 두 발을 '5초간' 올리는 신기록을 세우고 첫 도전을 마무리했다.

1년 뒤, 나는 자전거로 '겨우' 출퇴근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커브 길이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늘 페달에서 내려와 네발이 되는 자전거 초보였다. 그러나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던가. 나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잡았다. 바로 자전거 국토종주였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작년 긴 추석 연휴를 기회로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추석 기차표를 예매하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계획을 세웠다. 청사에서 관사까지 4km의 하천길이 내가 타본 유일한 자전거 코스였는데, 6일 만에 부산에 도착하려면 하루에 100km씩은 가야 했다. 누구라도 말리는 게 당연했지만, 모두가 뜰어말리니 왠지 더 해내고 싶어졌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많아 첫날은 준비물을 챙기고 인천까지 가는데 시간을 꼬박 쓰게 되었다. 바로 다음날 아라 서해갑문에서부터 대망의 국토종주를 시작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보다 손바닥과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이 고통이 5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김예슬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국회의사당이 보일 무렵, 여기서 관두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 덕
분에 가까스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포기하고 숙소를 잡았지만
내심 이 비가 그치지 않길 바라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날씨는 거짓말처럼 화창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 사실 넘어져
서 핸들이 빠тол어지기도 했고, 5일 동안 핑크도 네 번이나 났다. 안장통에 늘 괴로웠고, 해가 진 후
에 숙소를 찾느라 밤길에 자전거를 끌고 한 시간 정도를 헤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새벽 안개가 낀
자전거 길을 누구보다도 먼저 달리는 그 상쾌함, 빨간 인증센터를 발견할 때의 그 기쁨, 꿀맛 같은
이온음료, 끝이 보이지 않던 이화령을 넘은 후의 내리막길 같은 것들이 힘든 순간을 보상해주었다.

두 발로 온전히 설 때까지

칠곡보 인증센터를 마지막으로 찍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종주를 아쉽게 마무리해야 했다. 가장 가까
운 기차역인 왜관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려니, 앉아서 가는 이동수단이 얼마나 편리한지 새
삼 느낄 수 있었다. 꼬박 이들은 페달을 돌려야 갈 수 있던 부산에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했다. 도시
의 화려함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허벅지 근육통과 마주하며 인천에서 경북 칠곡까지의 국토종주
를 마무리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커브 길을 돌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탓에 아직 네발의 자
전거 초보는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이런 내가 국토종주 후기를 쓰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다. 올해 꼭 다시 도전해서 아직 남은 인증 수첩의 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그때는 꼭 온전한 두 발이길 바라며...





길치의 좌충우돌 당일치기 여행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어디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먼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일정상 당일치기로 혼자 다녀올 만한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 최종 후보지는 인천. 서울에서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도 편해 고민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차이나타운의 새벽 산책

새벽 6시에 도착한 인천 차이나타운! 사람들이 없을 때 돌아다니면 조금 편하게 구경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한적해서 좋다고 생각했으나, 길이 너무 조용하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만 돌아다녀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양쪽 석등 모양이 다른 돌계단을 봤다. 독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미가 있었다. 좌측은 청나라(현 차이나타운), 우측은 일본(현 인천개항장거리) 양식의 석등이고, 청과 일본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했다. 계단에 올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던 중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니 많은 사람들이 자유공원에서 단체 체조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중국에 잠시 머무를 때 자주 보던 모습이라 그리 낯설지 않았다.

뜻밖의 발견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그 마트'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다. 인터넷에서는 분명히 자유공원 끝쪽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길치인 나는 어느새 햇빛 하나 없이 나무만이 울창한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서 있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근처 계단을 내려가는데, 중간에 덩그러니 서 있는 흰 건물이 보였다. 창고처럼 보여 그냥 지나치려다가 혹시 근대 건축물일까 싶어 안내판을 보았더니 <도깨비>에 등장했던 '제물포 구락부'였다. 문을 열면 일제강점기 때로 돌아갈 것 같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멈춘 느낌이었다. 개항기에 외국인의 사교장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아직 운영 시간 전이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아쉬웠다. 차이나타운의 다른 곳도 둘러보고 싶었으나 아침이라서 문을 닫은 곳이 많았다. 무엇보다, 길치인 내가 길을 너무 많이 헤매서 지쳐있었다.



박미진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인천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김유정 문학촌 거리

이층 기차와 함께 가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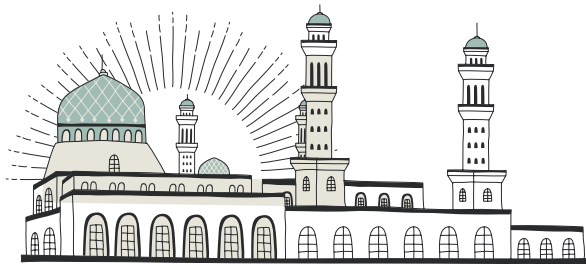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전에 용산에서 본 이층 기차가 생각났다. 아직 오전이라 ITX-청춘 열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이층 기차를 운행하는 가평행 기차에 올라탔다. 평소 궁금했던 청춘 열차를 타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언젠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물론 그만큼의 휴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평에서 놀 거리를 검색해보니, 김유정역에 짬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김유정역으로 향했다. 짬뽀이역은 김유정역 바로 옆에 있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짬뽀이역에 비교하면 높이도 낮고, 구간도 짧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에게는 난관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어린아이들도 신나게 타러 가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도전한 짬뽀이역은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뭘 할까 생각하며 그늘을 찾아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을 따라가 보니 김유정 문학촌이 나타났다. 나도 티켓 한 장을 사서 생가로 들어갔다. 생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잘 복원되어 있었다. 집 구조도 보기 드문 형태여서 인상 깊었다. 장독대 앞에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도 나온 점순이가 키 재는 장면을 연출한 동상도 있었다. 더 오래 천천히 구경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기차 시간이 다 되어서 나들이를 끝내야 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

색색의 문화가 빛은 말레이시아

뽀뽀한 밀림, 오색의 열대어가 노니는 산호초, 트윈 타워로 대표되는 화려한 불야성의 고층 빌딩숲 그리고 푸른 지붕의 고아한 모스크, 내가 2년간 살았던 말레이시아는 팔색조의 깃털처럼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나라이다. 원래 계획은 이곳에서 잠시 영어를 배우다가 같은 영연방국가인 호주에서 석사학위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전통과 미래 산업의 가능성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학위를 받게 되었다. 색색의 보석이 가득 찬 보석함 같은 말레이시아 특유의 문화를 다양한 음식을 통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한예진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 나시르막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국민 음식을 꼽는다면 '나시르막'을 들 수 있다. 나시르막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맥도날드에서는 나시르막 햄버거를 판매하고, 2017년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미스 말레이시아는 나시르막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나시르막은 코코넛밀크와 판단임을 넣고 지은 달콤한 향이 감도는 밥으로, 매콤한 볶음 고추장과 맛이 비슷한 삼발소스, 고소하게 튀긴 멸치와 땅콩, 그리고 계란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삼발소스의 맛은 민족에 따라 달라진다. 매콤달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말레이식, 얼얼하게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인디언식, 깔끔한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로컬 차이니즈식의 나시르막을 맛보면 된다. 하나의 음식에도 각 민족의 특성과 기호에 맞게 재해석 하면서도 코코넛 밥과 삼발이라는 원형은 지키는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융합 문화를 볼 수 있다.

가난한 중국 이민자에게 힘을 준 한 끼, 바쿠테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의 부는 주석 광산에서 나왔다. 영국인들에 의해 주석 광산 개발 열풍이 불었지만, 천성이 느긋한 말레이인들은 주석 광산의 고된 노동을 꺼려했다. 지천으로 널린 주석을 캐 수 없었던 영국 지배층은 중국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시장을 채웠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인 로컬 차이니즈의 역사는 이렇게 주석 광산의 가난하고 고된 노동자의 삶에서 시작되었다.

가난한 식민지 말레이시아에서도 최빈곤층 이민자였던 중국인들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매우 고된 육체노동을 이겨내야만 했다. '바쿠테(Bak-kut-teh)'는 중국 이민자들의 고향인 호기엔 지방에서 육골차(肉骨茶)를 부르는 발음인데, 문자 그대로 버려지는 돼지의 내장과 갈비 등의 부속 부위를 끓여 만든 탕에서 유래되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바쿠테는 내 고향 부산의 돼지국밥과 유래도 맛도 비슷해 지칠 때마다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었다.

인도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 마막과 테 타릭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마다 '리틀 인디아'로 불리는 인도인 거리가 있다. 후각, 시각, 미각을 단번에 사로잡는 강렬한 인도요리, 화려한 색채의 힌두사원, 이국적인 문양의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고 다니는 인도인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인도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터전은 '마막(mamak)'이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24시간 노천 식당이다. 주로 나시고렝, 미고렝, 로띠, 사모사 등의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많이 판매한다. 마막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음료 중의 하나는 말레이시아식 밀크티인 테 타릭이다. 테 타릭은 진하게 끓인 홍차에 걸쭉하게 졸인 달콤한 연유를 넣고, 양손에 든 스텐용기로 모기 부리듯이 번갈아 따라 옮기며 풍부한 거품이 일도록 만든 음료로, 말레이시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별미이다.

몇 년 전 모 방송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소개할 때, 1, 2, 4, 6, 7위의 상위권을 말레이시아의 라면이 석권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저력은 동서양의 모든 문화가 녹아든 말레이시아의 문화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말레이시아를 가게 된다면 노천시장의 말레이 좌판, 무슬림 인도인의 마막, 올드타운의 로컬차이니즈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를 권하고 싶다. 음식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융합 문화를 탐험할 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



바나나 잎에 예쁘게 포장된 나시르막



고영양 모양식 바쿠테



테 타릭을 만드는 마막의 앵글





미래를 바꾸는 두 가지 선택, 『장미와 찔레』를 읽고...



입사 4년 차, 사회생활에 지쳐갈 때쯤 친구가 한 권의 책을 선물해줬다.

나의 사랑스러운 동기 혜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가 벌써 이만큼 걸어왔나 싶더라고. 올해가 2010년. 우리가 2001년에 처음
 만났으니 벌써 10년이란 세월을 서로 알고 지냈더라. 예전에 네가 혹시 읽을
 만한 책이 없냐고 물어봤었지? 그때 바로 떠오른 책이 이 책이었어. 내용이 무
 겁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네가 이 책을 읽어야 내 선물
 이 더욱 빛나게 되는 거 알지? 꼭 읽어봐~ 아무쪼록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
 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장미꽃 인생, 찔레꽃 인생

책의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힘든 직장 일에 지친 그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대학 시절 존경했던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이때 교수는 인생을 장미와 찔레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찔레꽃은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작은 망울들을 터트리지만, 장미는 오랜 기간 자라 어느 한 철에 크고 화려한 꽃을 활짝 피운다는 것이다. 이어서 교수는 첨언한다. 둘 중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는 스스로가 정해야 하고, 후 후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이 말이 무척 마음에 와 닿았다.



정혜리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당시 나는 내 모습이 주인공과 참 닮았다고 느꼈다. 2006년 8월 7일, 기상청으로 첫 출근을 했을 때 나는 합격의 감동에 벅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나게 기상대로 향했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는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감이 충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첫 출근의 감동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힘겨워 이직에 대한 고민을 수백 번도 넘게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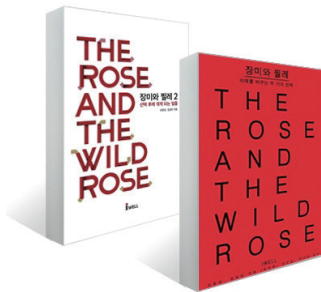


차근차근 쌓아가는 미래

『장미와 찔레』 책이 내 생각을 180도 바꾸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실 도피만은 하지 말자는 마음을 다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장미와 찔레의 인생 중 어느 하나가 더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무난한 찔레의 삶보다 장미꽃의 인생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중요한 건 integrity. 신뢰다.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장미처럼 인내하며 자신의 경력을 차근차근 쌓으면 언젠가 나도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의 연속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민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보니 취업, 진로 등 만만치 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취업만 하면 끝날 것 같던 고민은 오히려 취업 이후에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고민의 연속일까? 혹시 당장의 일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수많은 고민 속에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혜리는 '장미'가 되고 싶어? 아님 '찔레'가 되고 싶어? 난 장미가 되고 싶더라.

'괄목상대'라고들 하지.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또다시 시간이 흘러야 할 거야. 그때 내가 눈부시게 발전한 너의 모습을 보고 눈을 비빌 수 있게 되길 빌게~

언제나 혜리를 응원하는 동기 재현이가

2010년 1월 어느 고요한 금요일 밤에.

8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내가 되었을까...? 📖

더운 여름의 지표, 삼복! 삼복이 무엇일까?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불리는 삼복(三伏)!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뉘며 여름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삼복

삼경일(三庚日)이라고도 불리는 삼복! 세 번의 복날이죠. 혹시 복자가 무슨 복자일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날이니까 복이 들어오는 날이니 복(福) 자를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정답을 미리 말하자면, 아닙니다! 삼복의 복은 엎드릴 복(伏) 자를 사용하는데요. 왜 엎드린다는 의미의 복(伏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러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복(伏) 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여기서는 가을철 금(金)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여름철 강한 화(火)의 기운에 눌러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屈伏)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는 곧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고 하여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쇠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伏) 자를 써서 삼복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복의 유래

삼복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중국의 <사기(史記)>를 보면 진나라 덕공(德公) 2년에 삼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진나라 이후 삼복을 숭상하여 한때 조정에서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더운 여름에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육류나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삼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복날, 궁에서는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빙표를 나눠주었고, 관의 장빙고에서 빙표를 내고 얼음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얼음이 귀해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고 서민들은 계곡이나 강가에서 더위를 식히며 삼베옷을 입거나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안고 자며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우리나라의 삼복과 비슷한 맥락으로 'Dog day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북반구의 한여름에 큰개자리 시리우스성이 태양에 근접하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신예지
10기 블로그 기자단

복날을 이겨낼 음식

가장 더운 날이 아니더라도 기력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 바로 삼복이죠. 타오르는 여름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1 삼계탕

역시 삼계탕이 빠질 수 없겠죠? 닭은 따뜻한 성질로 오장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하여 동의보감에서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복날에 닭볶음탕, 닭곰탕 등 닭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드시기도 하죠! 아미노산과 단백질,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사골곰탕

사골도 이열치열 음식으로 빠질 수 없죠! 사골은 콜라겐과 단백질, 칼슘 등의 무기질이 많아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골다공증과 빈혈, 피부미용에 좋습니다.

3 장어요리

원기회복에 좋다고 소문난 장어요리! 여름이 체철이라 가장 힘이 좋을 때입니다. 양념해서 구워 먹거나 찜, 튀김, 덮밥 등 여러 요리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4 전복죽

고소한 바다향기를 내는 전복죽! 예로부터 임금님께도 올렸던 음식입니다. 간과 콩팥의 기운을 돕고 눈을 밝히는 효능이 있으며 단백질이 많고 지방질이 적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살이 말라서 맛이 없어 8~10월이 가장 맛이 좋다고 하니 말복에 드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갈비탕, 갈비찜 등 다양한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 요리로 만족할 수 없다면 전복을 갈비찜에 넣어 전복갈비찜이나 삼계탕에 곁들인 전복 삼계탕도 좋겠죠? 뜨거운 요리는 안되겠다! 정말 더워서 안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철 별미로 유명한 고소한 콩국수나 초계탕, 오이나 미역을 넣은 냉국의 시원한 국물을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삼복(三伏)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위에 지쳐 힘들다고 느낄 때쯤, 복날에 맛있는 보양식 드시고 쉬어가며 더위를 이겨내 봅시다! ☀



늙은 소년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지음 | 창비

얼마 전, 기상청 독서 동아리 '글동'의 독후감을 쓰기 위해 회장인 윤기한 사무관님께 책 추천을 부탁드렸다. 사무관님은 자네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았다. 10대, 20대의 사랑 얘기인가? 하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늙은 소년의 슬픈 이야기였다.

이 소설은 17세 동갑내기 '미라'와 '대수'가 고교 시절에 덜컥 임신해서 낳은 '아름이'의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이다. 아름이는 세 살 때 조로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린다. 그래서 외모뿐 아니라 배 속의 장기 등 몸의 모든 것이 세월보다 빠르게 노화된다. 하지만 아름이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불평하기보다는 젊음,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씩씩한 모습을 보인다. 애는 애다워야 하는데, 나이에 비해 의젓한 걸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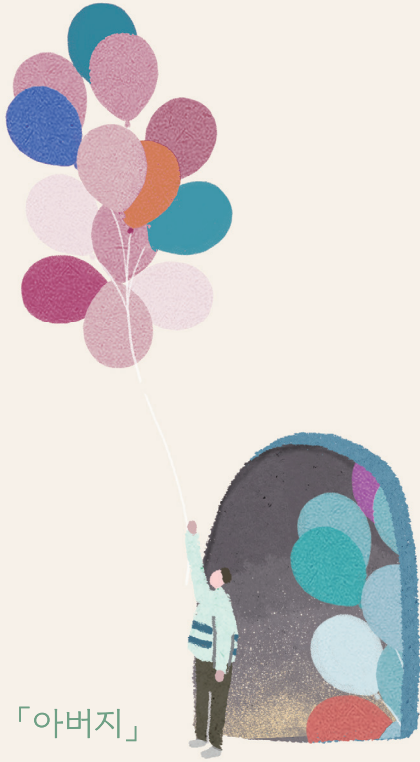
아름이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가 만나 자신을 낳기까지의 이야기를 죽기 전에 선물로 주려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가 산속의 개울에서 처음 만난 얘기, 아빠 대수가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다 불공정한 판정을 내린 심판을 돌려차기로 때려눕힌 얘기, 임신한 사실을 각자의 부모에게 말하고 집에서 맞은 얘기 등등. 힘들었지만 즐거운 얘기들로 차곡차곡 채워진다.

하지만 아름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집안의 형편은 나빠진다. 엄마 미라는 병원비 모금을 위해 동창생인 방송 PD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후, 어느 날 아름이는 동갑내기 여자애에게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된다. 아름이는 자신에게 메일을 보낸 '이서하'라는 이름의 여자애에게 조금씩 애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서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 것을 알게 된다. 아름이는 큰 상처를 받고 충격에 빠진다. 그렇게 아름이는 점점 더 늙고, 시력도 잃어버린다. 아름이는 "보고 싶을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삶과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선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오병찬

수도권기상청 관측과



「아버지」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대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내가 되고 싶으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소설의 중간에는 동네 할아버지이자, 아름이와 마음의 친구인 장 씨 할아버지와 의 대화가 등장한다.

“평생 아픈 대신 장수하는 자식과 건강한데 요절하는 자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할아버지는 무얼 고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기가 찬 듯 ‘허’ 소리를 냈다.

“아름아”

“네?”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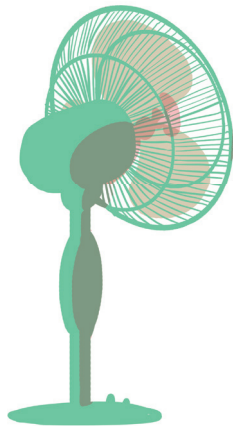
“넌 입버릇처럼 항상 네가 늙었다고 말하지. 그렇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네 나이야. 질문 자체를 잘못하는 나이. 나는 아무것도 안 고를거야.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없어.....”

나는 이 소설을 아름이의 처지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읽었다. 만약 내가 저 부모의 상황이었으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나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을까?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둘 낳고 나니 걱정도 하나, 둘 많아진다.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 하지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기에 지금 내 인생을, 이 순간을 좀 더 값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름이는 아빠에게 시를 한 편 선물해준다. 이 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

바깥, 어떤 불면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중에 내내 야근을 한 탓에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본가에는 대체 언제 내려올 거냐는 부모님의 성화에 짜증도 났어요. 기온이 오를수록 입맛도 없어졌어요. 점심에 밥 한술 제대로 못 뜨는 저에게 삼계탕이라도 사주겠다는 동료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은 체한 것처럼 불편했어요. 일에 집중을 아무리 하려 해도 무기력하게 느껴지면서 도통 속도가 나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야근을 내내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잠을 못 이룬 건 처음이에요.



이옥수
독립잡지 트램폴린 편집장

잠이 오지 않는다고 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에 침대에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오질 않았죠. 그래서 낮에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카페인도 들어 있는 녹차조차 마시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침실 온도를 이십이 도에서 이십삼 도로 맞추는 게 좋다고 해서 맞춰놨을 정도였죠. 하지만 계속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결국 이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이달 초에 헤어진 애인 때문일까 하고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일정이 조금 빡빡했지만 순탄하게 진행 중이었고, 애인은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 나인데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어쨌든 혹시 애인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제 불면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명함첩을 꺼내서 명함을 찾기 시작했어요. 헤어지자마자 휴대전화 번호를 지워버렸는데 그 사람 번호를 제가 전혀 외우지 못했거든요. 중복되는 숫자 없이 참 어려운 번호였던 것만 기억이 날 뿐 번호는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재작년인가, 무슨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명함이 여기저기 섞여있어서 그런지 쉽게 찾지도 못했어요. 차라리 그 사람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통번호를 찾아서 연락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을 만큼 명함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결국 찾아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결번이더라고요. 저와 만나면서 한 번인가 두 번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뭐랄까, 사랑하던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이렇게까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써내려가기로 했어요.



이름 김석진, 나이 서른두 살, 생일 십이월 사일, 취미 낚시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금세 막히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짬뽕? 봉골레 파스타를 더 좋아했던 것도 같은데. 그래, 다른 걸 먼저 생각해보자. 좋아하는 색은 밤하늘처럼 짙은 색을 좋아했지. 그래서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그 사람이 여름은 온종일 하늘만 보고 있어도 즐겁다고 했었어요. 여름엔 하늘의 변화가 몹시 예뻐서 지루할 틈이 전혀 없다고 했죠.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어요.

계속된 불면의 원인이 열대야라는 사실어요. 그리고 그 열대야는 바깥부터 천천히 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춰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게 머무는 열대의 시작과 끝은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이별의 이유 같은 건 사실 없었어요. 그날은 너무 더웠고, 휴가를 취소해야 했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헤어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

라고요. 왜냐는 그의 물음에 저는 툭 던지듯 대답했죠.

“지겨워서.”

지겹다는 건 연애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마 끝에 길게 찾아온 열대야가 지겨웠죠.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봄을 타서 설레고, 가을을 타서 외롭다는 그런 뻘하고 흔한 말이 우리에게 너무 슬픈 결말을 가져왔다는 사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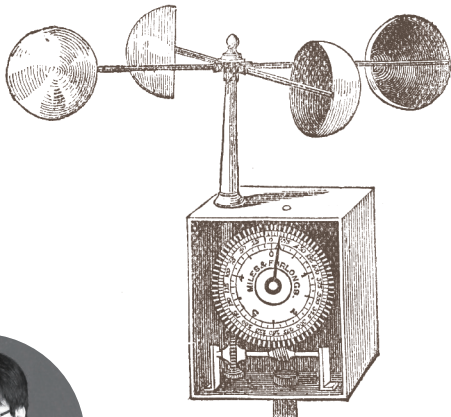
왜 그런 말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한다거나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온도가 저는 딱 이십오 도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제게 계속되나 봐요. 다음 달이 되면 괜찮아지겠죠. 가을의 이십오 도와 여름의 이십오 도는 다른 온도잖아요.

이 여름이, 부디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이 열대야가 끝나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



무적함대를 막은 프로테스탄트 바람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씨에 이러한 전쟁의 승패를 뒤바꿀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전술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저서 『전쟁론』에서는 ‘치밀한 작전보다 그날의 기상 조건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정명섭
소설가



필리페 2세, 잉글랜드를 정복하기로 결심하다

1588년, 스페인을 다스리는 통치자 ‘필리페 2세’는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당신의 적을 제가 물리쳐 드리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소서.” 유럽의 거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던 필리페 2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알미운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구교인 가톨릭을 박해하고 신교인 프로테스탄트를 섬기고, 신대륙에서 건너오는 금과 은을 약탈하라고 해적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페 2세는 해적들의 우두머리 격인 ‘드레이크’에게 기사 작위를 내린 것은 자신과 스페인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믿었다.

날씨까지 고려한 펠리페 2세

필리페 2세는 아르마다(Armada)라고 불리는 무적함대를 출동시켜 잉글랜드를 손봐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측근들은 130여 척의 함대와 3만 명의 병력, 네덜란드 지역에 주둔 중인 스페인 육군까지 가세한다면 조그마한 섬나라 잉글랜드쯤이야 쉽사리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중했던 필리페 2세는 여기에 날씨까지 고려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함대를 출동시켜서 네덜란드를 거쳐 잉글랜드로 가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 시기의 스페인과 잉글랜드 사이 유럽 연안에는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긴 하지만, 바다가 잔잔한 편이라 항해를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또한, 오늘날 영불해협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해협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해류가 흘렀다. 즉, 아르마다가 잉글랜드로 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후였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유리한 기후까지 갖춘 아르마다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하지만 1588년 5월, 아르마다의 출발은 시작부터 삐끗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를 지킨 바람

예년이라면 항상 불었어야 할 유럽 연안의 잔잔한 남서풍 대신 거친 북풍이 불어 닥쳤다. 덕분에 출항은 한없이 늦춰졌고, 7월이 되어서야 겨우 잉글랜드 해협에 도착했다. 그래도 시기가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서둘러 스페인 육군을 태우고 잉글랜드에 상륙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적 드레이크를 앞세운 잉글랜드 해군이 유리한 바람을 등지고 나타나 수시로 괴롭혔다. 거기에다가 매년 부는 북서풍 대신 반대 방향인 남서풍이 불면서 아르마다의 발목을 붙잡았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빙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지역의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발생한 기상 이변 때문이었다. 예년과 다르게 분 바람은 잉글랜드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바람'이라고 불렸다.



날씨가 역사를 바꾸다

결국 날씨를 이기지 못한 아르마다는 잉글랜드 정복을 포기하고 귀환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거센 북풍 때문에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잉글랜드 북쪽을 지나 돌아가야만 했다. 중간에 마주친 폭풍우 때문에 스페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겨우 50여 척에 불과했다.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은 더 이상 잉글랜드 정복을 시도하지 못했다. 반면 잉글랜드는 프로테스탄트 바람과 폭풍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예측하지 못했던 날씨의 변화가 잉글랜드를 지키고 세계 역사를 바꾼 셈이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제11차 한중 지진과학기술 협력회의 (7월 6일)
한반도 대규모 지진과 백두산 화산재해 예방을 위한 한중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 제주도특별자치도와 방재 기상업무 협력 약속 (7월 9일)
태풍 '쁘라삐룬'의 피해 현장인 제주도 위미항의 상황을 점검하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제주도 방재 기상업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201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성과환류 워크숍 개최 (7월 12일)
현재 추진 중인 지방청, 지청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세부사업 중간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2017년도 성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 2018 폭염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 진행 (7월 17일)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주)농심과 공동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해피해피 캠페인'을 진행했다. 취약계층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및 흥보물 배포 등을 통해 폭염 정보 활용방법 및 행동요령을 알렸다.

Photo News



주한 프랑스 대사 기상청 방문 (7월 19일)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의 한-프랑스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가 기상청을 방문했다.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을 위한 체험존 운영 (7월 26~28일)

기상청은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빗물축제)' 기간에 서울광장에서 운영했다.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 개최 (7월 30일)

기상청과 국회(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가 공동으로 주최한 폭염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폭염연구센터를 비롯해 학계-언론계-방재 관계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폭염의 발생 원인과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39.6도, 관측 시작 이래 일 최고기록 경신 (8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관측 시작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6도(15시 36분)로, 1907년 10월 1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으며, 특히 강원도 홍천(1971년 9월 27일 관측 시작)은 41.0도(16시 00분)를 보여 기존 전국 1위인 대구 40.0°C도(1942년 8월 1일)의 기록을 경신, 전국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8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9월호의 단어는 <여행>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방학>

성라엘, 서울

아무것도 하지 않아 즐거움!

김연미, 제주

밀린 일기와의 전쟁

이현정, 인천

학생은 신나고, 학부모는 걱정되는 동상이몽

행유리, 서울

마음은 365일인데, 현실은 60일인 것

황지혜, 광주

'방'에서 '학'문을 닦는 것

QUIZ

1. 코코넛밀크와 판단잎을 넣고 지은 달큰한 밥으로, 다양한 소스와 곁들여 먹는 말레이시아의 음식은?

- ① 팟타이 ② 나르시막 ③ 휘귀 ④ 퐁암궁

2. 더운 여름의 지표 '삼복'의 '복'자는 무슨 한자일까?

- ① 복 복 福 ② 돌아올 복 復 ③ 엎드릴 복 伏 ④ 옷 복 服

지난달 퀴즈 정답

1. ④ 100주년
2. ③ 프리다이빙

지난달 퀴즈 정답자

정태신(부산), 김종민(제주), 박말희(광주), 강호우(인천), 강금용(경남)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8.7.16.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조진호	전보	'18.7.16.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서기관(과장)	권영근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이영호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기술서사관(대장)	이명희		
		관측기반국	국기기상수퍼컴퓨터센터	기상사무관	오하영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	최병철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최권철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	김백조		
		관측기반국	정보보호팀	방송통신사무관	이용태	송진	'18.7.16.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준석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기상사무관	조경숙			기후과학국	이상기후팀	방송통신사무관	강인수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기상사무관	조구희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	이은희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남숙영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상사무관	고혜영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사무관	김용석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	이혜숙				
		전보	'18.7.13.~ '19.7.12.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기상연구관	전영수	파견 (연장)	'18.7.13.~ '19.7.12.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기상사무관	조경모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기상사무관	함인경			면직	'18.7.17.	광주지방청	예보과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기상사무관	류수호	예보국	영향예보추진팀			기상사무관	한호진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기상연구관	황의홍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사무관	이은주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기상연구관	이지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행정사무관	김재욱
				지진화산국	지진정보기술팀	기상연구관	서동일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행정사무관(과장)	김재호
				수도권기상청	관측과	행정사무관	전덕수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행정사무관(과장)	김재호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	마승원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김은영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상사무관	김동진	'18.8. 1.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	박중수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방송통신사무관(과장)	박관휴	파견	'18.8.1.~ '19.7.31.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기상사무관	김용범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방송통신사무관(과장)	정기덕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대전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	공업사무관(대장)	전인철	인사 교류	'18.8.1.~ '19.7.31.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환경사무관	김영주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행정사무관	구순모										

시끌벅적 하늘사랑

성라엘 서울

기상청의 웹진 '하늘사랑'을 처음 보게 됐어요. 날씨,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나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가 많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의존해 여름을 나는 중이라 그런지 여름 무더위에 대한 기사가 제일 와 닿네요. 전 세계가 폭염으로 힘들다고 하니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걱정이예요. 저부터라도 물을 아끼고, 플라스틱 사용도 자제하고, 전기도 줄여가며 환경을 보호해야겠어요!

정태신 부산

아마존 열대우림이 온실가스로 말라가고 있군요. 기후변화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벌목도 금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가요! 지구의 심장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행유리 서울

사람도 100세가 되면 '장수다, 대단하시다'라고 하는데 전주기상지청이 100주년이라니 정말 오래되었네요. 긴 세월 동안 유지된 기관은 그만큼 역사가 깊고 탄탄하며 믿음직하지요.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100주년! 그밖에도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쓴 원고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재미있게 읽는 중에 라하가 방긋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저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네요. 여행, 도서, 영화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려진 기상청의 '하늘사랑'이 앞으로도 꼭 계속되길 바랍니다.

강호우 인천

하늘사랑에 실리는 여행기를 특히 잘 보고 있습니다. 해외의 낯선 곳, 유명한 곳, 숨겨진 명소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어 설레네요. 여행을 자주 떠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을 하늘사랑으로 달래봅니다. 독자가 원하는 여행지를 잘 파악해서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7월호는 모로코 여행기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진 : 황은숙, <바다 위의 소나기>, 2012 기상기후사진전 장려상 / 글 : 조희애

고백은 파란색

널 좋아해

싱그럽게 익은 마음은
모두 파란색이에요

바다가 푸른 이유는

전하지 못한 고백들이
이곳에 풍당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마음은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자꾸자꾸 커지다
핑!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과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인당 월 60~80만원, 1~2년간)
※ 조기단축 사업장 우대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년간)
- ◆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1인당 월 최대 40만원, 1~2년간)
-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지원(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